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⑫ 단오문화 (下)



▶한줄 요약
시시때때로 일어나 마음을 들끓게 하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불길을 돌아보며,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를 찾아가자는 의미가 단옷날 소금에 담겨 있다.

마음 속 화기 잠재우는 단옷날 소금

스님들의 소풍

노스님들이 들려주는 단오문화는 다채롭기 그지없다. 예전에는 단오가 스님들의 소풍날이기도 했다. 설 · 추석을 제외하면 명절을 금하여 '단오'를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사찰도 있었지만, 대개 출가수행자들도 삶에 기반을 둔 자연 세시(歲時)의 변화를 함께 즐겼다. 근현대로 접어들면서 단오에 조상제사를 지내지 않아 사찰에 재가 없으니, 이날은 수행자 중심의 명절을 보낼 수 있었던 셈이다.

스님들의 소풍은 곧 산행을 뜻한다. 여름이 시작되는 단옷날 마을에서 씨름 · 그네 등의 놀이를 하듯이, 더위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스님들도 산에 오르며 심신을 단련하는 문화가 있었다. 특히 영남지역 사찰의 단오 풍습이 다채로워, 노스님들은 "단옷날엔 무조건 산에 올랐다", "의무적이다시피 쑥을 캐서 떡을 만들어 먹었다"고 회상하였다.

단오 전이면 강원 · 선방 구분 없이 모든 대중이 나와서 쑥을 뜯는 즐거운 울력이 이어졌다. 종일 씻어 삶은 쑥을 멥쌀과 함께 방앗간에서 갈아오면 직접 쑥떡을 만들었다. 오래 찧을수록 쫄깃하게 맛이 좋으니, 순번을 정해서 많은 양을 돌아가며 찧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큰방에 여러 개의 원을 그리며 둘러앉아 손바닥으로 두드려 얇게 빚어 쪄내면, 아무것도 넣지 않은 담백한 맛이 일품이었다.

대중 수에 따라 쑥떡을 공평하게 분배받아 산에 올랐다. 1970년대 해인사 약수암에서는 60여 명의 대중 각자에게 15개 정도씩 쑥떡이 돌아갔는데, 그날은 떡뿐만 아니라 원주스님의 지휘 아래 김밥이나 주먹밥을 싸고 사이다와 오이까지 하나씩 챙길 수 있었다. 그렇게 든든히 걸망에 매고 산행에 나섰으니,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의 더없이 즐거운 소풍이었던 셈이다.

단오는 사월 보름의 하안거 결제가 시작된 지 20일 정도 지났을 무렵이라, 선방마다 쑥떡은 즐거운 절식이 되었다. 어느 선방에서는 함께 만든 쑥떡을 선방 뒤에 줄을 매어 채반마다 가득 올려두곤 하였다. 대중의 뜻에 따라, 각자 나누지 않고 오가며 자유롭게 먹도록 한 것이다. 쑥떡은 약간 꾸덕꾸덕하게 말라도 맛이 있어 이삼일은 두고 먹을 수 있었다.

선방 · 본채 스님들이 단옷날 솥단지를 들고 함께 개울가로 나가기도 했다. 돌을 괴어 아궁이를 만들고 양은솥을 걸어 불을 지핀 뒤, 수제비를 끓이거나 감자전 · 호박전을 구워 먹으며 화기애애한 한나절을 보내는 것이다. 평시 어른 스님들 몰래 개울가에서 나뭇가지로 불을 때어 군것질하던 학인 스님들의 장난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날이었다.

개심사 · 개운사 등에서는 단옷날 뒷산에 그네를 매어 타는가 하면, 봉녕사 학인들은 이날 반마다 화전을 부쳐 어른 스님들의 평에 따라 상을 받기도 했다. 사찰마다 스님들끼리, 또는 신도들과 함께 갖가지 종목으로 활기찬 체육대회를 펼친 역사 또한 깊다. 설이나 해제일에 성불도놀이 · 윷놀이가 스님들의 실내 놀이문화라면, 단오야말로 수행자들의 활달하고 다채로운 여가문화가 전승되었던 명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소금으로 화기를 누르다

"이 소금으로 삼재팔난을 물리치고, 마음속 화기(火氣)를 잠재우게 하소서." 단옷날 사찰에서 신도들에게 소금을 나눠주며 외는 스님의 기원이다. 단오에는 소금이 중요한 상징물로 쓰인다. 양기가 강하면 불기운을 머금어 화재와 가뭄이 발생하기 쉬우니, 양기 충천한 단옷날 부족한 음기를 보충하고 화기를 억누르기 위한 처방이 바로 소금이다.

소금을 화재 예방으로 쓰는 풍습은 우리나라 외에 찾아보기 힘들다. 소금은 부패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부정과 액을 물리치는 상징성을 지녀, 주로 정화의 의미로 쓰인다. 이와 함께 우리의 경우 소금이 곧 바다를 나타낸다고 보아, 물로써 불을 막는 뜻을 취한 것이다. 이를테면 풍수적으로 화산(火山)에 해당하는 산이 있으면 불이 날 수 있으니, 소금이나 간물단지를 묻어 이를 제어하게 된다.

이러한 '소금 처방'이 마을에서는 주로 공동체의 평안을 바라는 정초 동제(洞祭)를 지낼 때 행해졌다면, 사찰에서는 단옷날의 의식으로 전승되었다. 연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단오의 특성을 중요하게 여겨, 이를 다스리는 데 의미를 둔 것이다. 특히 사찰의 역사를 보면 목조건물의 특성상 화재로 전각이 소실된 경우가 빈번하여, 이를 막기 위한 절실함이 의례 전승의 기반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찰의 단옷날 처방으로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 소금 또는 소금단지를 법당 마당에 묻는 것이다. 특별히 인근에 화산형국의 산이 있거나 화재가 빈번한 역사를 지녔을 경우, 더욱 적극적인 처방이 따른다. 대표적인 사례로 해인사에는 해마다 단옷날이면 사찰 경내는 물론, 남산제일봉에 올라 소금을 묻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해인사 단옷날 소금 묻기 / 남산제일봉에 소금을 묻는 모습. ©서종원

화마 침범 막기 위한 간절함에
전각에 소금단지 올린 사찰도
창건설화 관련 용왕재 올리며
한 해 무사 안녕 하기원하기도



통도사 단오용왕재 / 용왕재를 지낸 뒤 소금을 나눠주는 모습.

1876년 퇴암 스님이 해인사에 불이 난 역사를 기록한 〈해인사실화적(海印寺失火蹟)〉에 따르면, 1695년부터 1871년까지 일곱 차례나 큰 화재가 있었다. 따라서 엄중한 방비를 세우는 한편으로, 민간의 풍습을 수용해 소금 묻기 의식이 시작된 것이다. 화마(火魔)로부터 팔만대장경과 성보를 지키고자 본 · 말사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소중한 행사라 하겠다.

이날 이른 아침 불공을 올린 뒤, 경내 곳곳의 홈이 파인 염주석(鹽柱石)마다 소금을 넣고 물을 붓는다. 이어 본 · 말사 스님들은 각자의 자락에서 남산제일봉에 오르고, 한편에서는 신도들이 사찰 외곽인 용탑 · 원당암 · 야간통제소 입구에 소금을 묻기 시작한다. 경내에서 외곽으로, 외곽에서 산으로 영역을 넓혀가며 불기운을 꺾는 의식이 이어지는 것이다.

남산제일봉은 해인사가 자리한 가야산과 마주하고 있다. 그 형상이 불꽃처럼 날카로워 화산에 해당하기에 소금으로 화기를 제압하는 풍수비보(風水裨補)를 행하는 것이다. 해발 1천 미터가 넘는 산길을 오르는 것도 불기운을 잠재우는 과정이다. 양의 기운이 충만한 단옷날 수많은 출가수행자가 산을 밟아 오르니 어찌 화마를 누르지 못하겠는가.

정상에 오른 사부대중은, 불공을 올리고 동서남북과 중앙의 오방(五方)에 각각 소금단지를 묻고 물을 붓기 시작한다. 방위마다 파놓은 구덩이에 소금단지를 넣고 물을 부은 다음, 뚜껑과 흙을 차례로 덮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위 사이에도 한지로 싼 소금을 깨워 넣는다.

특히 소금을 땅에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물을 부어 소금물을 만드는 발상이 신선하다. 소금에 물을 붓는 것은 간물(바닷물)을 만드는 것으로, 화재를 막는 민간의 오랜 비책이었다. 물 가운데 가장 거대하고 한량없는 바다를 나타내고자, 간물을 만들어 썼던 옛사람들의 지혜가 놀랍다. 이에 대해 민속학자 허용호는 "단옷날 소금 묻기를 하는 해인사 스님들은 산꼭대기에 바다를 묻는 분들"이라 표현하였다.

화마로부터 가람을 지키는 용

소금이 바다를 상징하는 데 쓰였다면, 용(龍)은 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섬김의 대상이 되어왔다. 용이 바다의 우두머리이자 비를 내리는 능력을 지녔다고 여겨, 용왕제는 풍년을 비는 정초에 주로 행한다. 사찰에서도 대보름날 주민들과 함께 강가 · 바닷가에 나가서 방생을 겸해 용왕제를 올리는 곳이 많다. 대보름 불교 용왕제는 생명을 살리는 자비심과 함께, 화엄성중인 용왕을 섬겨 공동체의 염원을 기원하는 의미가 두루 담겨 있다.

그런데 실제 용왕의 능력이 가장 절실한 시점은 단오이다. "단오에 비 오면 농사 다 짓는다", "오월 장마는 꿔다 해도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모내기를 끝낸 단오 무렵은 비가 간절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옷날 비를 내리고 불기운을 누르기 위한 용의 역할이 부각되어, 법성포 단오용왕제를 비롯해 곳곳에서 단오축제로 용왕제를 겸하는 곳이 많다.

이에 비해 사찰에서 단옷날 용왕을 섬기는 사례는 드문데, 통도사의 경우 이날 소금 올리기와 결합된 용왕재(龍王齋)가 전승되고 있다. 그 내력을 보면, 통도사 대광명전은 1756년에 화재로 전소되었다가 2년 뒤 중건하면서, 내부 천장 아래 항화마진언(抗火魔眞言)을 적어 화마의 침범을 막기 위한 간절함을 담았다. 이 무렵부터 각 전각에 소금단지를 올리는 의식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 창건설화와 관련된 용왕재를 올리게 된 것이라 한다.

본래 통도사 절터는 큰 연못이었는데, 이곳에 아홉 마리의 약룡(惡龍)이 살면서 비바람을 일으켜 백성을 괴롭혔다. 이에 자장율사가 용을 찾아와 모두 설법으로 교화했는데, 한 마리 용이 그곳에 남아 터를 지키겠다고 맹세하였다. 스님은 연못을 메우고 금강계단을 쌓아 절을 창건하면서, 연못 한 귀퉁이를 남겨 용을 머물게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 수호의 아름다운 서약이 담긴 용왕의 거처 구룡지(九龍池)에서, 단옷날 이른 아침 한 해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용왕재를 올린다. 불교에서는 가뭄과 장마, 질병과 재해가 있을 때면 법회를 열어, 불보살과 신중을 모시고 국난극복을 모색해온 역사가 깊다. 이는 부처님의 증명 아래, 불법과 공동체를 수호하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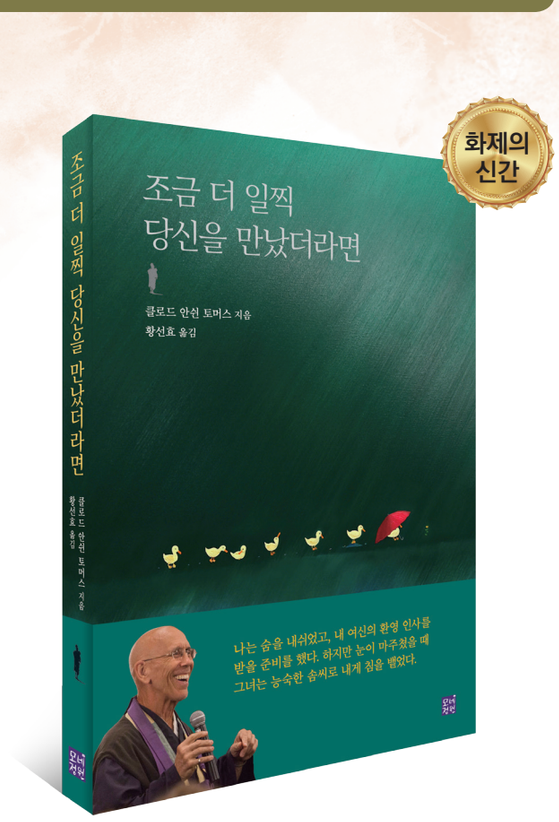
이러한 발원으로 사부대중이 용왕재를 올리고 나면, 대웅전에서부터 공양간까지 전각의 들보 머리에 얹혀있던 60여 개의 소금단지를 모두 새 소금으로 교체하게 된다. 용과 소금은 모두 물로써 불을 이기기 위한 장치임을 알 수 있다.

스님들은 단옷날 소금 처방이 지닌 의미를 소중하게 여기며, 의식을 마치고 나면 신도들에게 소금을 나누어준다. 땅속에 묻히고 전각에 얹힌 소금을 물리적인 화재와 재앙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화기까지 잠재우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시시때때로 일어나 마음을 들끓게 하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불길을 돌아보며,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를 찾아가자는 의미가 단옷날 소금에 담겨 있다.

'용왕제'와 '소금 묻기'는 마을공동체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이다. 그러나 사찰에서는 사부대중이 함께 삼보를 지키는 종교공동체의 신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튼실한 기반으로 전승되고 있다. 음력을 근간으로 한 전통문화 계승의 교두보로서 불교의 역할이 돋보이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화제의 신간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